

통계로 본 2024년 상반기 식품제조업 동향

박미성 | 김성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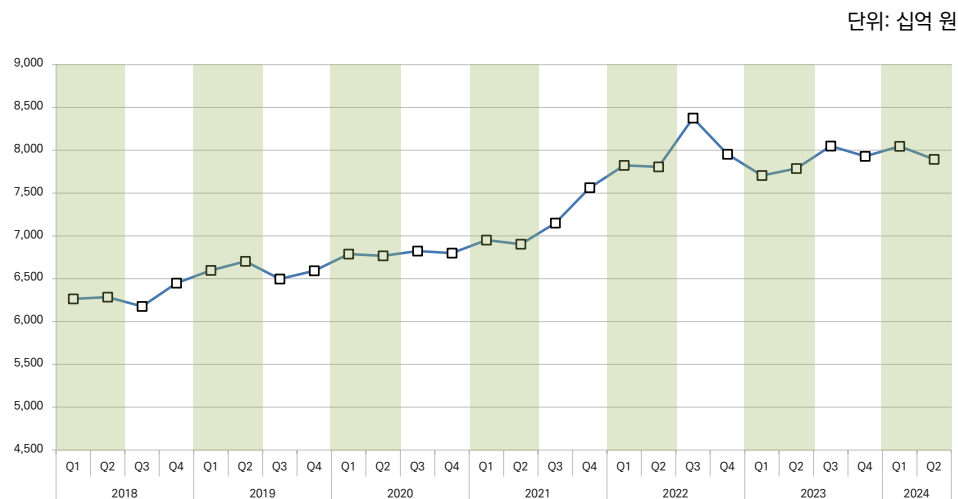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은 식품산업 정보를 수집·가공·심층분석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정 운영되고 있음.
- 식품외식정보 웹진 2024년 제10호에서는 국내 식품제조업 관련 2024년 상반기(1~6월)의 거시지표, 출하와 물가 현황, 재고상황, 수출입 현황, 식품제조업의 상반기 경기 현황 및 3분기 경기 전망 조사 결과를 가공·분석하여 정리함.
- 분석 결과, 1) 2024년 상반기 실질 GDP는 2023년 상반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가계의 실질 식품 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함. 2) 2024년 상반기 식품제조업 출하지수는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일부 업종에서 높은 폭으로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3) 식료품제조업의 2024년 상반기 재고율은 100%대 미만을 유지한 반면, 음료품제조업은 100%를 초과하였음. 한편, 4) 2024년 상반기 가공식품의 수출액은 2023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최대치를 경신함. 5) 식품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며 최근 5개년 상반기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지만 상용직 비율은 소폭 감소함. 6) 2024년 3분기 식품산업 경기는 2분기 대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곡물가공, 육류가공, 증류주 및 발효주업 등의 부문에서 개선이 예상됨.

1. 2024년 상반기 식품산업 관련 거시지표

2024년 식품제조업 실질 GDP 및 실질 가계소비지출은 2023년 상반기 대비 감소

- 2024년 상반기 식품제조업의 실질 GDP는 15.9조 원으로, 2023년 상반기 대비 2.9% 증가함.
 - 2024년 상반기 식품제조업의 실질 GDP 증감률은 +2.9%로 국내 소비 침체, 인건비 등 제반비용 상승에 따른 제품 원가 상승 부담 등의 제약에도 글로벌 식품 매출(수출) 증가, 원재료 투입단가 일부 안정화 등의 요인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실질 GDP: (‘23년 상반기) 15.5조 원 → (‘24년 상반기) 15.9조 원

■ 식품제조업 분기별 실질 GD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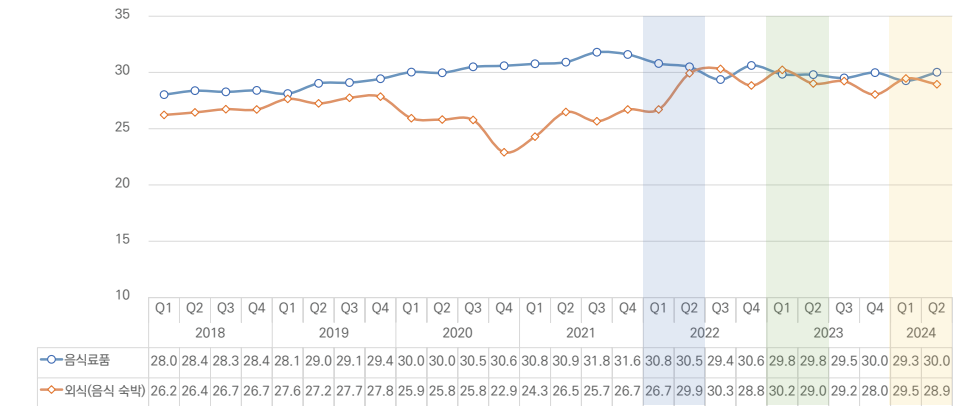
주: 분기별 실질 GDP는 계절조정 자료를 이용함.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2024 2/4, 2024.9.5., 경제활동별 GDP 및 GNI.

- 2024년 상반기 가계의 실질 식품(비주류 음료 포함) 지출액은 59.3조 원으로 2023년 상반기(59.6조 원) 대비 0.6%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가계의 음식업 및 숙박업 실질 소비지출액은 58.4조 원으로, 전년 동기(59.2조 원)보다 지출규모가 소폭(1.4%) 감소하였음.
 - 반면, 가계의 명목 식품 지출액은 71.7조 원으로, 2023년 상반기 지출액(69.3조 원) 대비 3.5% 증가하였음. 즉, 식료품 구매에 지출한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고물가로 실질적인 소비량 감소세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음.

■ 음식료품 및 외식(음식/숙박)에 대한 분기별 실질가계소비지출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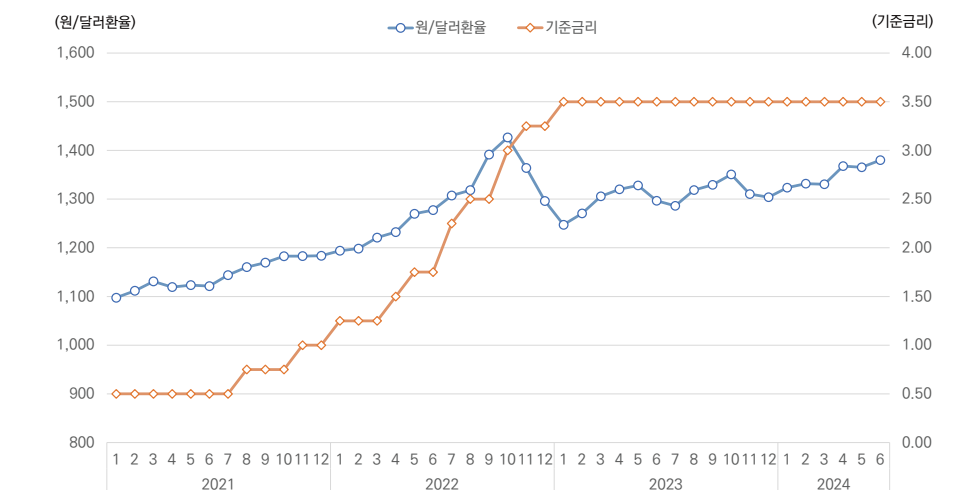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2024 2/4, 2024.9.5.,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 2024년 상반기 대미 환율은 1,350원대 수준으로 2023년 4분기 이후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냈으며, 국내 기준금리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3.5%를 유지함.
 - 원/달러 환율은 2023년 10월 1,350원대를 정점으로 다소 안정화되었으나, 2024년 1분기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의 지연이 전망되며 다시 점진적인 상승세로 전환함. 환율 상승은 식품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이 우려되는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원/달러 환율: (‘23년 4분기) 1,321.7 → (‘24년 1분기) 1,328.7 → (2분기) 1,371.1
 - 국내 기준금리는 2023년 2월 3.5%로 상승 후 2024년 상반기까지 3.5%대를 유지하였음. 이는 국내 소비 위축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 동력이 미약하였기 때문임.
 - 금리: (‘23년 1월) 3.25% → (‘23년 2월~‘24년 6월) 3.5%

■ 월별 대미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단위: 원/달러, %



자료: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20240903, 2024.9.4.,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20240903, 2024.9.4.,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

2. 식품제조업 업종별 출하 및 물가

2024년 상반기 식품제조업의 출하는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동기대비 감소, 생산자 물가는 일부 업종에서 크게 상승하여 전체 생산자물가 상승 견인

- 2024년 상반기 식품제조업의 출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3년 하반기 대비 회복하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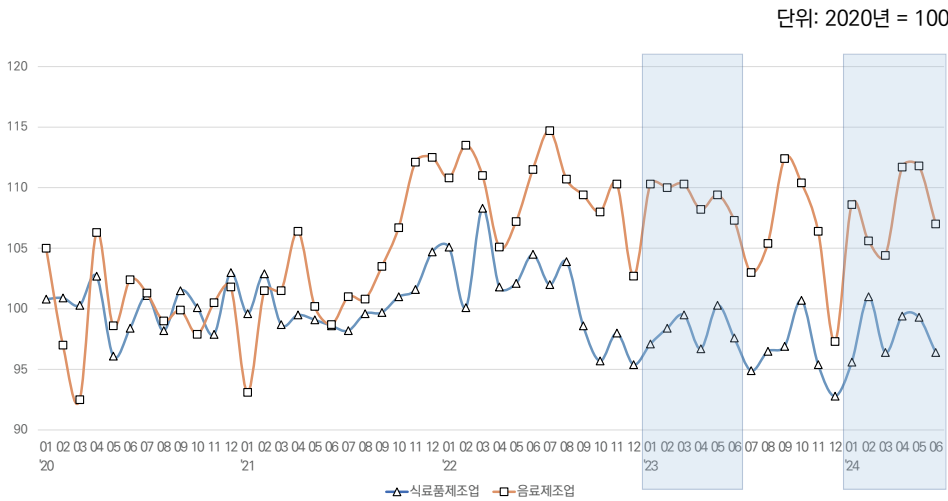
- 2024년 상반기 식품제조업의 출하지수는 평균 98.1로 전년 동기(98.3) 대비 0.2% 하락하였지만, 2023년 하반기(96.2)보다 출하량이 1.9% 증가함. 동 기간 음료제조업의 출하지수는 평균 108.2로 전년 동기(109.3) 대비 -1.0% 하락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105.8)와 비교 시 출하량이 2.3% 증가하여 회복세를 나타냄.

- 월별 흐름을 보면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모두 2023년 12월에 출하가 크게 감소한 뒤 2024년 4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6월에 다소 감소 양상을 보임.

· 식료품제조업 출하지수: 1월 반등, 2월 대폭 증가, 3월 대폭 감소, 4~5월 소폭 증가하였으나 6월 감소

· 음료제조업 출하지수: 1월 대폭 증가, 2~3월 다소 감소, 4월 대폭 증가, 5월 추세 유지 후 6월 급감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월별 출하지수 추이



주: 2024년 5~6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통계 확정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24.6, 2024.8.12.,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

- 2024년 상반기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 2.8% 상승하였으나, 지난 분기(2023년 4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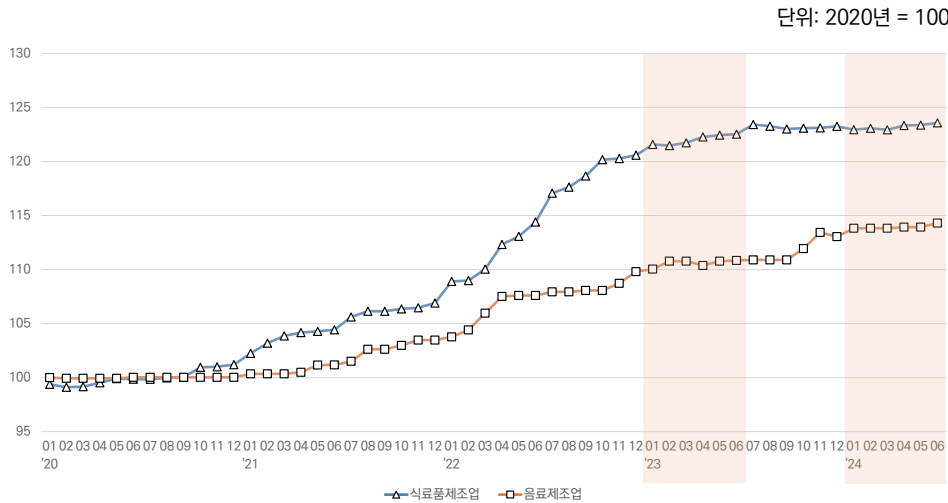
- 2024년 1분기 식료품제조업의 생산자물가지수는 평균 123.2로, 전년 동기(123.0) 대비 1.0%의 증가율을 보이며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123.0)와 비교 시 유사한 수준이었음. 음료제조업의 상반기 생산자물가지수는 평균 113.9로, 전년 동기(110.6) 대비 3.0% 상승하였고, 2023년 하반기(111.9)보다도 소폭 상회하였음.

- 월별 흐름을 보면 식료품제조업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023년 하반기 들어 7월부터 소폭 상승한 이후 2024년 4월까지 큰 변동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됨. 음료제조업의 경우, 2023년 11월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2024년 1월 들어 추가로 소폭 상승 후 유지세를 보임.

· 식료품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23년 1~6월) 122.0 → (‘24년 1~6월) 123.2

· 음료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23년 1~6월) 110.6 → (‘24년 1~6월) 113.9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생산자물가지수 월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2024.6., 2024.8.12.,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

- 2024년 상반기 식품제조업의 대부분 업종에서 출하가 감소하였으나, 기타식품과 육류가공업, 비알콜음료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출하가 증가함.

- 세부 업종별로 보면 식용 유지(-19.8%), 낙농품(-9.0%), 사료 및 조제식품(-4.5%), 수산물가공(-4.0%) 등의 순으로 출하 감소율이 높았으며, 음료제조업에서는 경우 알콜음료의 출하가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상반기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고환율·고금리 기조 또한 이어졌고, 이는 원자재 가격 및 수입물가 상승으로 대부분 식품제조업 업종에서 출하가 감소한 것으로 추측됨.

-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출하가 증가한 기타식품의 경우, 고물가 현상 지속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밀키트를 비롯한 저렴한 간편식 제품에 대한 인기가 출하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육류가공업의 경우 축산물 가격 안정화 지속과 더불어 나들이철 특수 등에 따른 출하 증가로 추정됨.

2024년 상반기 업종별 출하지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단위: %

업종명(축약 업종명)	출하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식료품제조업	-0.2	1.0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육류가공)	2.7	-2.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수산물가공)	-4.0	-3.8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채·채가공)	-2.7	1.3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회업(유지)	-19.8	-5.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회업(낙농품)	-9.0	7.3
곡물가공업,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회업(곡물가공및전분)	-1.7	-3.5
기타 식품 제조회업(기타식품)	4.9	2.5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회업(사료및조제식품)	-4.5	-4.5
음료제조업	-1.0	3.0
알콜음료 제조회업(알콜음료)	-4.6	5.8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회업(비알콜음료)	1.7	0.8

주 1) 기타식품에는 떡·빵·과자류, 면류, 조미료 및 첨가물, 건강보조식품, 도시락 등이 포함됨.

2) 생산자물가지수는 출하지수의 산업 분류와 유사하게 적용하여 계산함.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24.6, 2024.8.12., 시도/산업분류별 주요지표;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2024.6., 2024.8.12., 생산자물가지수.

3. 식품제조업의 재고 현황

2024년 상반기 식품제조업의 재고율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 음료제조업의 재고율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

- 2024년 상반기 식품제조업의 재고율은 평균 99.3%로 재고관리는 양호하나, 전년 동기(96.5%) 대비 소폭 증가하며 100%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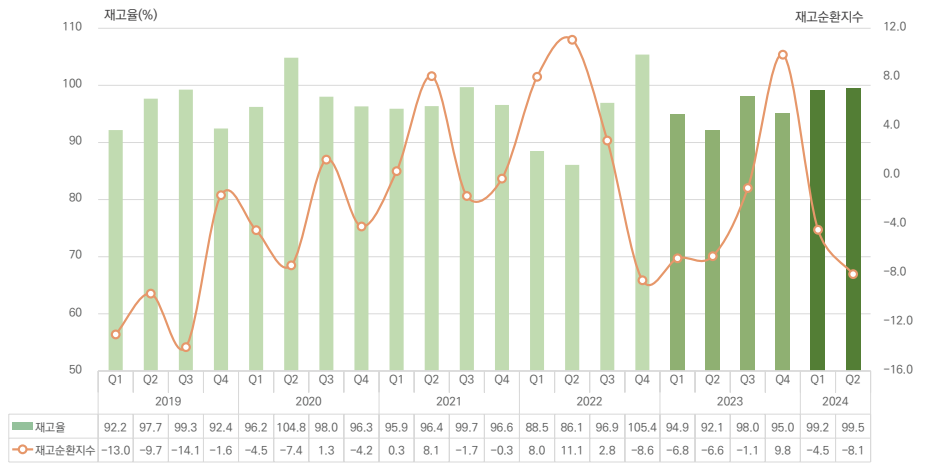
- 이는 코로나19 이후(2020~2023년) 상반기 재고율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2022년 하반기(101.2%), 2020년 상반기(100.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임.

- 2024년 상반기 식품제조업의 재고순환지수는 평균 -6.3으로 2023년 4분기 이후 다 시 음수를 기록하며 제품 출하 증가율이 재고 증가율보다 낮아진 것으로 확인됨.

· 재고율: (‘23년 4분기) 95.0% → (‘24년 1분기) 99.2% → (2분기) 99.5%

· 재고순환지수: (‘23년 4분기) 9.8 → (‘24년 1분기) -4.5 → (2분기)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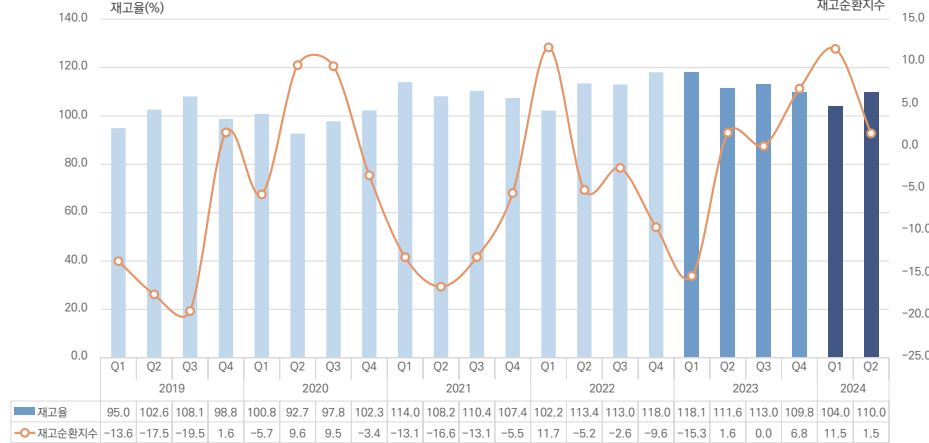
Ⅰ 식료품제조업 분기별 재고율과 재고순환지수



주: 2024년 2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통계 확정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24.6., 2024.8.12.,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

- 반면, 2024년 상반기 음료제조업의 재고율은 107.0%로 여전히 제품 재고량이 출하량을 상회함. 다만 전년 동기(114.9%)와 비교 시 재고율은 7.9%p 하락하며 소폭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임.
 - 이는 2020년대 상반기 재고율 중 두 번째로 낮았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었던 2020년 상반기(96.7%) 및 하반기(100.0%)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임.
 - 2024년 상반기 음료제조업의 재고순환지수는 6.5로 전년 동기대비 195% 증가하며 2023년 4분기에 이어 제품 출하 증가율이 재고 증가율을 상회함.
 - 재고율: ('23년 4분기) 109.8% → ('24년 1분기) 104.0% → (2분기) 110.0%
 - 재고순환지수: ('23년 4분기) 6.8 → ('24년 1분기) 11.5 → (2분기) 1.5

Ⅰ 음료제조업 분기별 재고율과 재고순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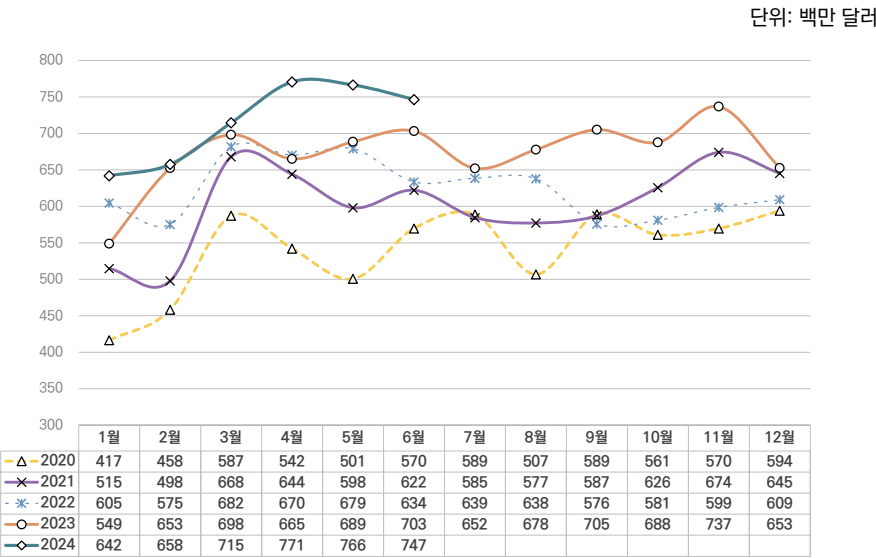
주: 2024년 2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통계 확정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024.6., 2024.8.12.,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

4. 가공식품 수출입 동향

2024년 상반기 가공식품 수출액은 지속하여 최대치 경신, 가공식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소폭 감소

- 2024년 상반기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47.7억 달러로, 전년 동기(44.7억 달러) 대비 6.7% 증가하며 수출 증가세를 꾸준히 유지하였음.
- 이와 더불어, 상반기 가공식품 수출액은 43.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39.6억 달러) 대비 8.6% 증가함.
 - 품목군별 수출액은 식용 유지가 29.6%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이어서 곡물 및 곡분 조제품(21.2%), 제분공업 생산품(10.8%), 채소 및 과일 조제품(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Ⅰ 가공식품 월별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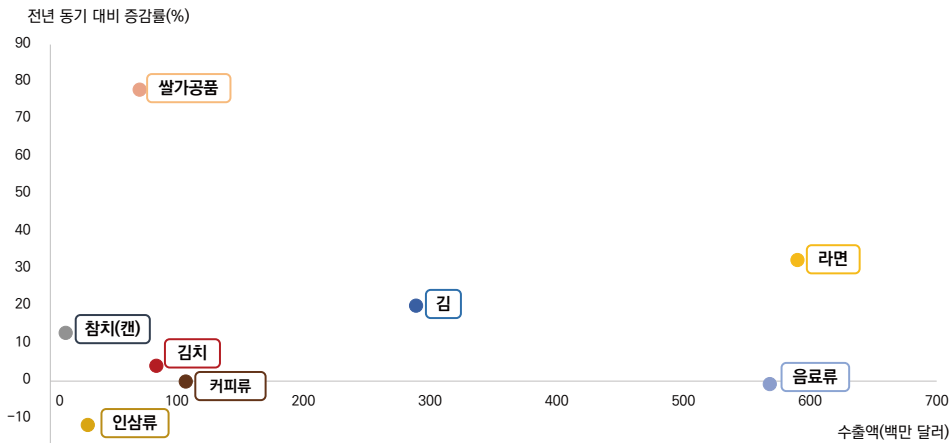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출입 실적」.

-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폭이 큰 가공식품 품목은 쌀가공품(김밥 포함, 77.9%), 라면(32.3%), 김(20.1%), 참치캔(1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쌀가공식품(즉석밥, 냉동김밥 등)은 비건 및 건강식, 그리고 한류에 대한 관심 지속과 함께 코스트코 등 미국 대형 유통매장 입점 확대로 그 인기가 지속되고 있음. 라면은 올해 5월에 월간 평균 수출금액이 1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함.

Ⅰ 2024년 상반기 주요 수출 품목군별 수출액과 수출 증감률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24년 8월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은 64.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였고, 역대 8월말 기준 수출실적 중 최대치를 기록함.
 - 품목별로 라면, 쌀가공식품(김밥 포함), 인삼, 김치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시장별로 보면 유럽, 미국에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Ⅰ 2024년 8월 기준 누적 농식품 수출실적

구분	2023년 1~8월	2024년 1~8월	증감률
농림축산식품	5,956.6	6,476.3	8.7
신선	973.6	967.6	-0.6
- 김치	106.6	110.0	3.3
- 포도	14.5	18.6	28.5
- 인삼	192.0	199.9	4.1
가공	4,983.0	5,508.7	10.5
- 라면	607.6	800.1	31.7
- 과자류	428.1	494.2	15.4
- 음료	395.2	448.8	13.6
- 커피조제품	214.9	222.1	3.4
- 쌀가공식품	133.9	189.7	41.7

주: 면세점 수출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9.3.).

2024년 8월 기준 주요 시장별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3년 1~8월	2024년 1~8월	증감률
유럽(EU·영국)	351.5	458.6	30.5
미국	832.7	1,022.8	22.8
GCC	207.4	232.0	11.9
아세안	1,186.3	1,256.3	5.9
중국	910.9	959.2	5.3
일본	972.3	900.0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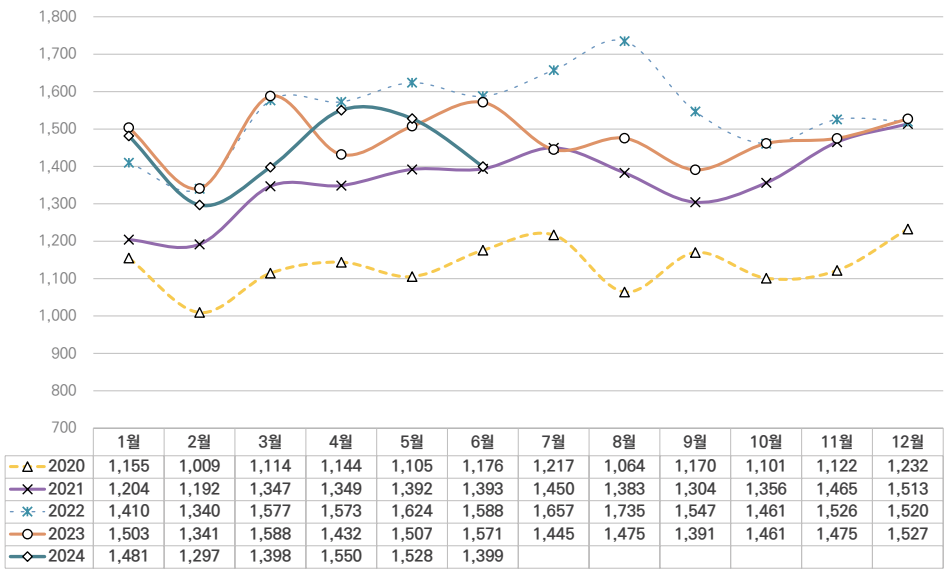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9.3.).

- 2024년 상반기 가공식품 수입액은 86.5억 달러로, 전년 동기(89.4억 달러) 대비 3.2% 감소함.

- 특히, 수입액 비중이 높은 조제식품, 조제사료, 식용유지를 비롯한 대부분 품목에서의 수입 감소로 인하여 전반적인 수입액 또한 감소하였음.
- 전년 동기 대비 수입 감소 폭이 큰 품목은 낙농품(-21.6%), 제분공업 생산품(-13.2%), 음료·주류·식초(-1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낙농품의 경우, 국내 유제품 소비 감소와 더불어 환율 및 운송비, 부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사료되며, 제분공업 생산품은 전분, 맥아, 글루텐 등 수입액 비중이 높은 품목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가공식품 월별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출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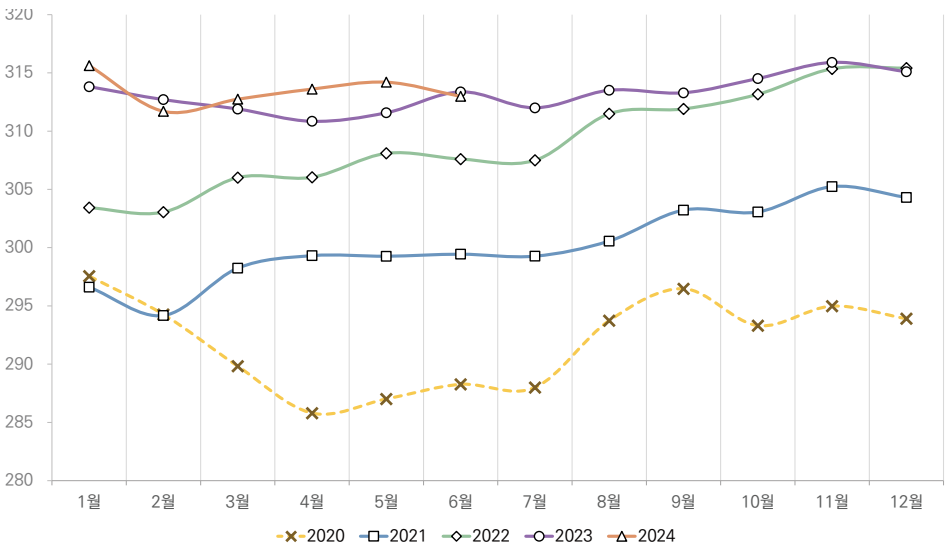
5. 식품산업 고용 동향

2024년 상반기 식품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소폭 증가, 최근 5개년(2020~2024년) 상반기 중 최대치

- 2024년 상반기 식품제조업의 평균 취업자 수는 31만 3,500명으로, 전년 동기(31만 2,400명)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최근 5개년(2020~2024년) 상반기 중 최대치를 기록함.
 - 그중 식료품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29만 7,3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였으며, 음료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19,7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함.
- 식품제조업 평균 취업자 수(천 명): ('23년 상반기) 312.4 → ('24년 상반기) 313.5

최근 5년간 식품제조업 월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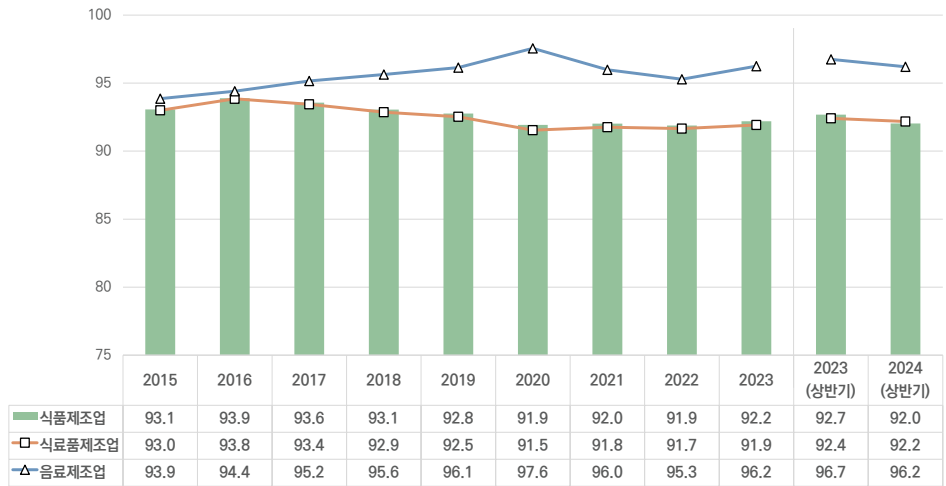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4.6., 2024.8.13., 산업/규모별 고용.

- 반면, 2024년 상반기 식품제조업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은 92.4%로 2023년 대비 소폭 하락함.
 -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부문 모두 상용근로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식료품제조업 부문 상용근로자 비율은 92.2%로 2023년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음료제조업은 96.2%로 전년 동기 대비 0.5%p 하락함.
- 식료품제조업 상용근로자 비율: ('23년 상반기) 92.4 → ('24년 상반기) 92.2
- 음료제조업 상용근로자 비율: ('23년 상반기) 96.7 → ('24년 상반기) 96.2

식품제조업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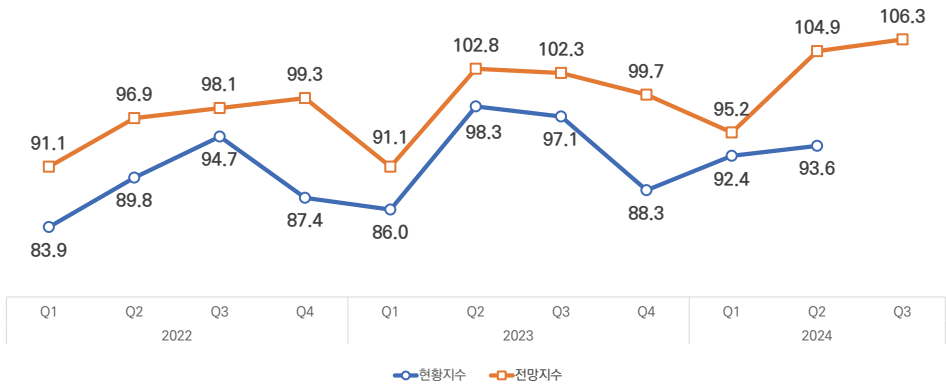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024.6., 2024.8.13., 산업/규모별 고용.

6. 식품제조업의 3분기 경기 전망

2024년 3분기 식품산업 경기는 2분기 대비 호전 예상

- 식품산업 경기동향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경기전망지수는 106.3으로 전 분기 대비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2분기 경기전반 현황지수는 93.6으로 1분기(92.4) 대비 지수가 소폭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경기 악화를 체감하는 업체가 많았음. 그럼에도 2분기 경기전반 전망지수는 106.3으로 나타나 다음 분기에는 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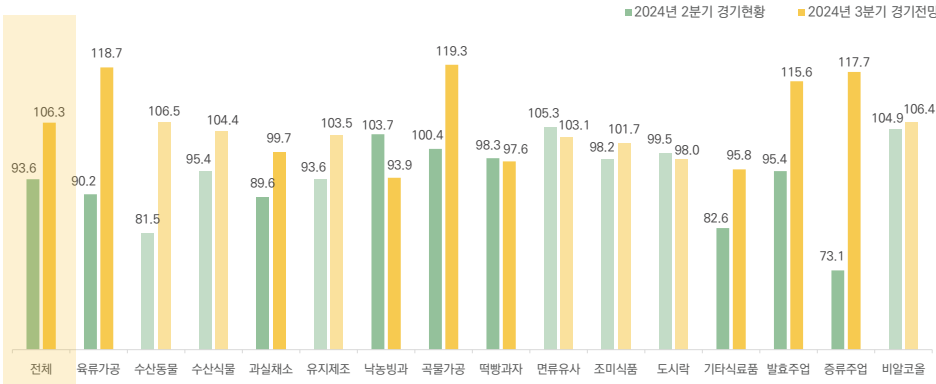
식품산업 경기동향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2024.3/4., 2024.8.13., 식품산업 경기 현황·전망지수 종합.

- 2024년 2분기는 면류유사, 비알코올, 낙농빙과, 곡물가공 등의 업종에서 환경·시기적 요인(날씨, 행사 등)에 따른 거래·소비량 증가로 경기 현황이 전 분기 대비 양호하게 진단됨. 그러나 증류주업, 수산동물, 기타식료품, 과실채소 등 대부분 업종의 경기는 등은 물가, 금리, 환율상승 등 경기불황과 원재료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 분기 대비 경기가 다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3분기는 시기적 요인(방학, 명절 등) 및 환경적 요인(기후, 날씨 등)에 따른 거래·소비량 증가로 많은 업종에서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낙농빙과, 기타식료품 등 일부 업종에서는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경제(금리/환율) 불안 및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량 감소로 차분기 경기 악화가 전망됨.
 - 호전 전망 업종: 곡물가공(119.3), 육류가공(118.7), 증류주업(117.7), 발효주업(115.6), 수산동물(106.5), 비알코올(106.4), 수산식물(104.4), 유지제조(103.5), 면류유사(103.1), 조미식품(101.7)
- 특히 가장 큰 폭으로 경기 호전이 전망되는 곡물가공 업종의 경우, 쌀가공산업의 약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루쌀을 포함한 쌀가공산업을 K-푸드 10대 유망품목으로 육성하여 2028년까지 쌀가공산업 시장 규모 17조 원 및 수출 4억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관련 산업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식품제조업 업종별 2024년 2분기 경기 현황 및 3분기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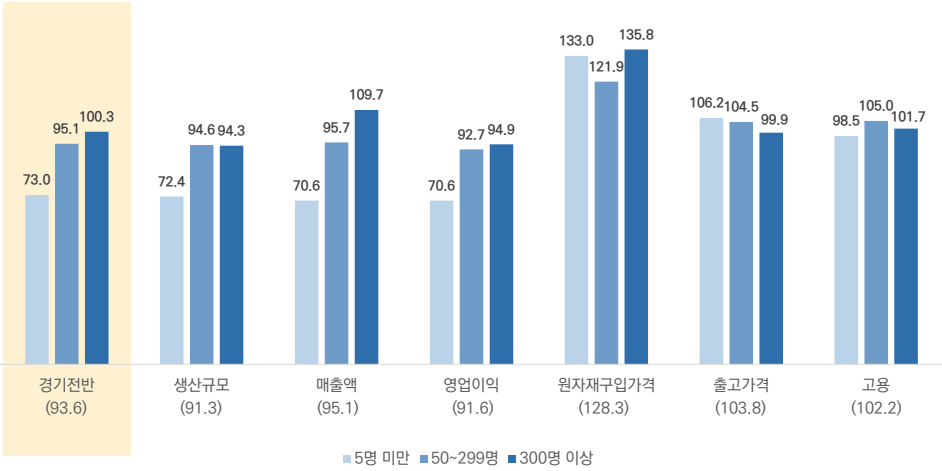


주: 2분기 현황은 전분기 대비, 3분기 경기 전망은 금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2024.3/4., 2024.8.13., 식품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 규모별로 중·대규모 식품기업에서 매출액 부문이 2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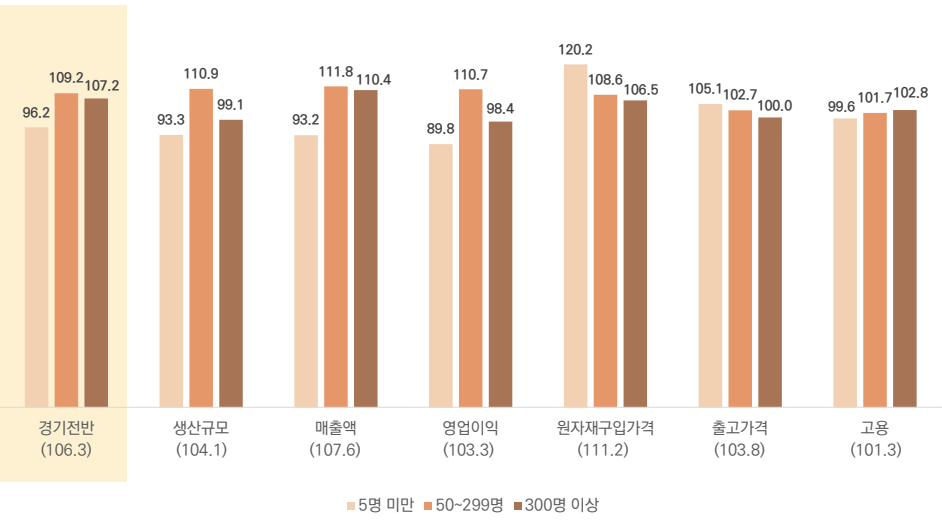
- 2024년 2분기 식품산업에서는 원자재 구입가격이 128.3으로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50인 이상 299인 미만의 중규모 기업을 제외한 소규모(133.0) 및 대규모(135.8) 업체에서는 전 분기 대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상대적으로 높게 체감함.
- 한편, 매출액 부문에서 50인 이상 중규모 및 3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서는 2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5인 미만의 영세기업에서는 2분기에 이어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보았으나, 감소 폭은 직전 분기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함.
 - 매출액 전망: (소규모, 5인 미만) 93.2, (중규모, 50~299명) 111.8, (대규모, 300명 이상) 110.4
- 이와 더불어, 5인 미만의 영세 식품기업의 경우, 인력 수급 등 고용여건의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식품산업 규모별 2024년 2분기 경기 현황



주: 2분기 경기 현황은 전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2024.3/4., 2024.8.13., 식품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식품산업 규모별 2023년 3분기 경기 전망



주: 3분기 경기 전망은 금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경기동향조사」, 2024.3/4., 2024.8.13., 식품산업 부문별 현황 및 전망.

저자 정보

- 박미성 연구위원(061-820-2362), mspark@krei.re.kr
- 김성휘 위촉연구원(061-820-2054), seongkim@krei.re.kr